

sbs '서세원의 좋은세상 만들기' 기독교편향 진행

교계 항의...사과-문책 요구

10일 방송분 4분30초동안 교회부흥회 방불 공중파 불교왜곡-특정종교 찬양 '선 넘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지녀야 할 공중파 방송이 온 가족이 보는 인기프로그램에서 개신교를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장면을 여과없이 방영해 불교계의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높은 시청률을 자랑하는 인기 프로그램인 SBS-TV '서세원의 좋은 세상 만들기'(담당PD 이상훈)는 지난 10일 방송분에서 미혼인 두 자녀를 신학교에 보냈다는 출연자 일석은 할머니와 사회자인 서세원, 신은경은 총 6차례에 걸쳐 '할렐루야'를 연발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개신교 신자인 서세원씨는 의도적으로 신앙간증을 유도했으며, 실제

어 방정격까지 '아멘'을 합창하도록 유도했다. 교회 부흥회를 방불케 하는 이같은 진행이 연출된 시간은 장장 4분30초, 두 진행자가 진행한 퀴즈코너의 총 시간량(20분)의 20%를 넘는다.

보리방송모니터회(회장 김재일)는 이에 대해 "방송사의 시청률 지상주의가 엮은 이러한 종교편향적인 방송진행은 녹화방송이란 점에서 진행자와 연출가, 카메라맨의 합작품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종교편향대책위원회(위원장 현진, 원혜)는 13일 방송위원회 앞으로 공문을 보내 "특정종교편향해당자에 대한 엄중 문책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청했다. 대책위는 같은 날 SBS-TV 앞으로도 공문을 보내 방송사의 공개사과와 해당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좋은 세상만들기"의 이상훈 PD는 "출연자들의 인생 자체가 종교적인데다가 오락적인 분위기를 물구다보니 본의 아니게 특정종교 분위기가 연출됐다"고 인정했다.

한편 공중파방송 프로그램에서의 이같은 특정종교 찬양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98년 5월22일 '경찰청 사람들'(스토킹 용의자인 사찰청년회장 등장시켜 불교왜곡) △98년 4월15일 '공개수배 사건 25시'(초파일 직전에 살인 가짜 승려 사건 다뤄) △97년 7월 CBS의 '새롭게 하소서'(불교비방) 등 셀 수 없을 정도.

하지만 보리방송모니터회의 자원봉사자가 수시여명에 불과할 정도로 교계의 방송 모니터 역할은 극히 낮은 수준이어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김재경 기자 (www.kim@buddhopia.com)

컴퓨터와 입체영상 만남 '석굴암 본존불 나투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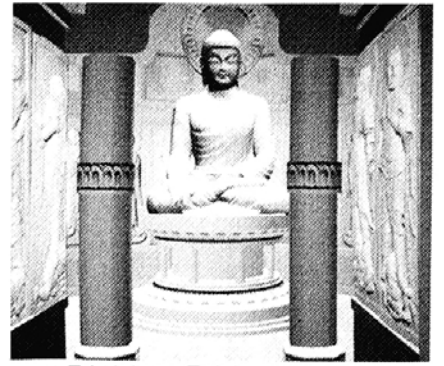
영상미디어연구센터 시연

가상현실에서 석굴암 불상들의 천년 미소를 보게 됐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영상미디어연구센터(소장 김형근)가 9일 슈퍼컴퓨터와 입체영상 기술을 결합, 3차원 세계에 석굴암 불상을 모신 것.

석굴암 불상은 리얼리티 스튜디오에서 LCD 셔터링 글래스라는 고급처리 렌즈 특수안경을 끼고, 스튜디오 전면에 마련된 가로 9.5m 세로 3.1m의 초대형 화면을 바라보면 그 찬연한 자태를 드러낸다.

또 석가여래상 앞으로 다가서면 병풍처럼 늘어선 주변의 천부상·보살상·나한상 등이 특수안경 속에서 눈을 부라리며 압도하고, 돌아서면 심일면 관음보살 입상이 미소로 반긴다.

최첨단 영상기술이 컴퓨터와 만나면서 그동안 '결로현상'을 피해 두꺼운 유리벽 뒤로 숨어버렸던 경주의 석굴암이 본존불 석가여래의 미소까지 만날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하게 다가온 것이다.



특수안경으로 투영되는 3차원 입체영상의 석굴암 본존불.

영상미디어연구센터는 리얼리티 스튜디오를 위해 수년간 20여명의 연구원들이 꼬박 매달렸다. 3차원 석굴암 불상을 재현한 김형근 박사는 "사실감을 위해 석굴내 균열과 더러움까지 표현했다"며 "이 기술을 이용하면 민족의 유산을 영원히 보존하고 향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gobaou@buddhopia.com)

'불교도농공동체운동' 준비위 발족

귀농학교·생협 조직화...사찰·단체 23곳 동참

불교귀농학교와 생활협동조합 활동을 아우를 '불교도농공동체운동' 준비위원회가 발족했다. 불교귀농학교 활동에 참여한 봉은사, 실상사, 우리는 선우 등 교계 23개 사찰 및 단체는 9일 종단협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준비위원장에 원혜스님(봉은사 주지)을 선출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원혜스님 인

터뷰 4면>
·준비위원회는 정관마련과 사업 계획안 및 예산안을 확정하고 운동본부 구성에 오는 7월 중순 창립대회를 갖고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준비위원회는 '조화로움 삶, 더불어 사는 사회, 생명살리는 농업'으로 이념을 포방하고 유기농산물 유통센터 건립과 주말농장 프로그램 운영, 생

태 수련회 개최, 음식찌꺼기로 퇴비 만들기 등의 사업을 확정했다. '불교도농공동체 운동'에는 봉은사, 실상사 외에 길상사, 능인선원, 원주 성불원, 삼성암, 부천 석암사, 수원포교당, 경산 선본사, 영화사, 조계사, 화계사 등 사찰 12곳과 우리는 선우,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 경복원, 대불련 총동문화, 맑고 향기롭게, 전국귀농운동본부, 청정국토만들기 운동본부, 한국불교환경교육원,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일과 깨달음 도량, 귀농학교 동문회 등 1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opia.com)

북한에 비로 2백톤 한마음선원 지원

한마음선원(원장 대행)은 13일 한국제이티에스(이사장 최석호)에 북한돕기 성금 6천만원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대행스님은 "최근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북한의 식량난과 이로운 대량 아사사태가 우리민족에게 가장 큰 비극이다"며 "한명의 북한주민이라도 살려내는 일이 불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라고 말했다.

이전에 북한지원금을 전달받은 한국제이티에스는 비로 2백톤을 구입하여 22일 12시 부산항에서 '한마음선원 99 북한비로선적식'을 갖고 라진-선봉지역에 직접 보내게 된다.

한편 한마음선원은 97년 4월부터 한국제이티에스에 북한돕기성금으로 4천여만원을 전달한 바 있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opia.com)

뉴스 & 뉴스

태고종 북비로보내기 동참

태고종(총무원장 인곡)은 7일 열린 전국 시·도 교구 총무원장 연석회의에서 현재 민족화합발전추진위원회(불추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북한 비로보내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비로보내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암 총무원 부원장과 인공 봉원사 주지를 불추위 공동 추진위원장에 선임한 태고종은 전국 시·도 교구 총무원별로 비로구입비를 모금,키로 했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opia.com)

공군서산기지 통천사 낙성

공군서산기지 도비산 통천사(주지 동광스님)가 25일 오후 2시 수덕사 주지 법장스님을 증명법사로 탐·현관 제막식 및 낙성법회를 거행했다. 2년전 간척지 해미방에 들어선 공군부대에 자리잡은 이 법당은 군예산 12억원을 지원받아 건립됐다. 통천사는 대지 2천8백평에 건평 134평 규모로 3백여명의 장병불자를 수용할 수 있다. (0455)689-2085 김재경 기자

동국대 내년 특별전형 확대

동국대(총장 송석규)는 내신성적과 면접만으로 선발하는 특별전형을 확대하는 등 2000년도 대학입학 특별전형계획을 15일 확정 발표했다.

동국대의 이번 입학 전형에서는 교구본사 주지스님과 종립학교교장의 추천도 건학이념 구현 차원에서 뽑는다. 수시모집에서는 35세 이상으로 직장경력 5년 이상의 장기 취업자를 대상으로 9~10월에 106명(서울 82명, 경주 24명)을 면접과 내신성적만으로 선발한다. 김지연 기자 (jygang@buddhopia.com)



선암사 성보지킴기 순천 선암사(주지 인곡스님)에 소장된 후불 탕화등 성보문화재를 지키기 위해 경찰이 나섰다. 경찰관 15명은 저녁 8시부터 아침 4시까지 개를 데리고 경내를 순찰하고 있다. 또 순천시의 지원을 받아 경내에 외동 18개를 신설하고, 가로등 62개를 보수했다. <순천=주몽직 광주지사장>

에비스님 109명 장기기증 서약

행자교육원서 단체 동참...264명 사미니계 수지

15일 직지사에서 회향한 제16기 행자교육원에서는 228명의 에비스들이 사후장기기증, 화장사약 등 생명을 나누는 소중한 인연을 맺었다.

이번 행자교육을 수료한 총 264명(사미 153명, 사미니 111명)의 에비스 가운데 상화 사미니와 109명이 사후장기기증, 119명이 사후화장사약에 동참한 것. 이번 생명나눔 캠페인은 행자교육 실시이후 처음 실시했으며,

자유의사에 따라 이뤄졌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

이날 회향식에서는 또한 모든 행자들이 출가발원문을 직접 작성해 수료자 대표로 선우 사미니가 자신이 작성한 발원문 낭독, "불법을 호기하며 치열한 수행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발원했다. 교육원은 앞으로 이 발원문을 모아 <발원문집> 책으로 제작할 예정이다. 이윤호 기자 (yhlee@buddhopia.com)

국방장관 면담요청 조계종 종교편향대책위

조계종 종교편향대책위원회(위원장 원혜, 현진)는 12일 국방부 장관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국방부에 발송했다. 대책위는 공문을 통해 "101 여단 군법당건립과 관련, 마

치 군법당건립 자체가 좋지 않은 일인양 인식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런 일로 군을 바라보는 시각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확대 발전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빠른 시일내에 면담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부산BBS 정상화 촉구 신행단체모임 성명

불교부산방송(사장 류진수) 지사장 선임과 관련해 부산시와 부산불교계 신행단체장들이 불교부산방송 정상화를 위한 연대모임(대표 정경강행)을 결성하고 사태수습에 나섰다.

12일 불교부산방송 정상화를 위한 신행단체 연대모임은 불교방송본사 성낙승 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불교부산방송 사장 선임

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들을 분명히 밝히고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성낙승 사장은 "운영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사장과 사장 선임건을 다시 논의해달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부산교계는 불교부산방송 지사장 선임건이 본사에서 이유없이 승인이 나지 않고 특징인을 사장 후보로 추천하고 있는 측면에서 공공연하게 류사장 사퇴를 거론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었다. 천미희 기자



광덕스님 추모 49재
불광사·불광법회 법주 금하당 광덕스님 49재 추모법회가 16일 오전 10시 서울 불광사 보광당에서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해암 조계종 종정, 탄성 조계종 원로회의 장, 고산 조계종 총무원장, 정일 선학원 이사장, 광우 비구尼회장 스님을 비롯 사부대중 3천여명이 참석해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opia.com)

단기 출가 선(禪) 수련회 안내

▶사람은 무한 능력의 소유자<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수련원에서는 직장인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단기 출가 선(禪)수련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1999년도 주말 선 수련회
◆ 내용 : 선(禪) 초심자의 실참실수(室參實修)와 단기 출가자로서 필요한 발우공양, 100배, 삼귀의, 오계 수계 등 불지예법.
◆ 장소 : 성북동 길상사 실참전 ◆ 인 원 : 선착순 50명
◆ 대상 : 일반인, 직장인 ◆ 수련비 : 2만원

차수	기간	대상	회비
제9차	4월24일(토)~25일(일)	일반인, 직장인	2만원

(토요일 오후 2시 30분 입재 / 일요일 오후 8시 30분 회향)
※매월 2, 4주에는 정기적으로 주말 수련회가 열립니다.
◆ 접수방법
1. 직접방문시 : 사무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
2. 팩스 이용시 : ①이름 ②생년월일, 성명 ③주소 ④연락처 전화번호 ⑤직업 ⑥수련회 경험유무 ⑦수련회 동참 소견(꼭 쓰세요)을 적어서 팩스로 접수, 이 경우 수련회비는 외환은행 계좌 301-22-00206-0, 예금주 <길상사>로 보내고 신청서와 입금표를 같이 보냅니다.
(수련비는 반환되지 않으나 친지나 본인이 원할 경우 원하는 차수에 언제라도 다시 동참 할 수 있습니다.)
◆ 자원봉사자 동참 : 수련기간 중 보살행으로 수련생을 후원할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오전이나, 오후 등 봉사자의 활용 시간대에 맞춰서 편리하게 동참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주로 하는 일은 수련회 사진준비, 공양간 찬상 정리, 사무실 보조 및 정리 등 자유롭게 동참합니다.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수련원
서울 성북구 성북동 323번지 (우)136-020
전화 (02)3672-5945-6 / 팩스(02)3672-5947

대한불교 무량종 창종공고

본종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교조로 자각 각타의 행원을 근본 교리로 삼고 수행정진으로 건성성불 전법도생을 중지로 대승불교 사상과 이념을 구현, 자비실천을 모체로서 사회복지 및 봉사정신으로 시대적 사명감과 대원력을 세워 모든중생을 교화하고저 창종을 선포합니다.

불기 2543년 4월 1일 목요일

◎ 창종대표 : 령 관 (이태순) 파 웅 (전현용)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홍지동 76-2 (본산 삼각산 무량정사) 전화 : (02) 379-1600

통도사성보박물관 개관에 따른 감사의 말씀

지난 4월 11일 저희 '통도사성보박물관 개관식 행사'가 성황리에 거행되었습니다.

개관식을 빛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지면으로나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靈鷲叢林 通度寺 住持 月把 合掌

GLOBAL WATCH

세계 여행의 필수품 "세계시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GLOBAL WATCH"

· 해외 교류업체의 시간이 궁금하십니까?
· 모국의 시간이 궁금하십니까?
· 해외가족 거주지역의 시간이 궁금하십니까?
· 자녀의 사고력을 키우고 싶으십니까?

세계 107개국 실용신안 특허 출원중
출원번호 PCT-KR98-00379

... GLOBAL WATCH 보는 법

· 시간은 각국(도시)의 위치점이 됩니다. 정상이 아닌 경우 각국(도시)의 위치점 우측 시간을 읽습니다. · 본종은 일반 시계와 마찬가지로 메뚜리(BREZIL)의 정점으로 읽습니다.

스테인리스 男女 각 ₩115,000
가죽 男女 각 ₩68,000

한국 시 13분, 스텐리스 10시 13분, 로마에이 8시 13분, 파리 5시 13분
한국 시 4분, 스텐리스 10시 4분, 로마에이 8시 4분, 파리 5시 4분

◆시침이 풀지 않고 원반이 돌아 ◆시간을 볼 때 모국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숫자로 보여 분침은 일반시계와 같음
◆서머타임 실시국가는 배열 조정으로 시각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www.gtnt.co.kr (404-220)인천시 서구 석남동 457-4
TEL : 032)576-4510, 575-4511 FAX : 032)576-4511